

# 국립서울대학교의 종합화와 캠퍼스 계획론의 도입, 1946-1975

## The Centraliz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Campus Planning, 1946-1975

성 나 연\*                      전 봉 희\*\*  
Sung, Nayon                      Jeon, BongHee

### Abstract

To create a new nation and society,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was established by combining former Kyungseong Imperial University with ten public colleges in 1946 under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However, the SNU failed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reform because the human resource and the space of the former system remained unchanged. After the Korean War, the ‘Minnesota Project’, an American education aid has led SNU to be rebuilt and turned into an American-oriented education system. The SNU Centralization Plan was promoted to complete this transformation. This plan required a specific spatial format called the campus, which emerged from the American cultural background. Under the U.S. influence over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several planners made proposals to create an American-style campus. The first campus plan in 1958 was proposed by Yoon Chang-sup, an architecture professor at SNU, who has studied abroad in the U.S. His initial plan to pursue the well-organized outer space with proper scale, which was influenced by post-WWII urban planning strategy, was not accepted by the realistic conditions of SNU and the perspectives of local architects. But his ideas were eventually implemented during a final campus plan proposed by an American planner DPUA in 1971. The final plan was developed with the idea of the locality elements of Korea. SNU's campus planning process was an important event that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modern Korean university space as it began to organize outer space rather than to use just building. This suggested modern Korean universities a new view that life in outer space is as important as the life in the classroom.

키워드 : 서울대학교, 캠퍼스 계획, 도시 계획, 미국화, 지역화, 냉전

Keywords :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pus Planning, Urban Planning, Americanization, Localization, Cold War

### 1. 서      론

국립서울대학교(서울대)는 해방 이후 설립된 한국 최초의 국립고등교육기관이다. 경성제국대학(경성제대)을 이은 경성대학과 10개의 관공립 전문학교를 통합해 1946년 개교한 서울대는 오랫동안 동승동캠퍼스를 중심으로 여러 캠퍼스에 분산된 단과대학들의 연합 체제를 유지해 왔다. 1975년 출발한 관악캠퍼스는 1980년 공대가 이전함으로써, 실습농장을 보유한 수원캠퍼스의 농대와 부속병원을 보유한 연건동 캠퍼스의 의대, 치대, 간호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이 모인 종합캠퍼스를 이루었다. 2003년에는 농생대가 관악캠퍼스에 합류하면서, 서울대는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대 종합캠퍼스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통해 조성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계획 과정에서 보이는

건축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이 논의되고 실현되는 1950년대 후반~1970년대 중반은 식민지 제국대학이 신생 독립국가의 중심대학으로 재편되어 가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비단 공간적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도 ‘미네소타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미국의 원조사업을 통해 신속한 탈일본화와 미국화의 경향을 보이는 시기로서 중요성을 가진다(Kim, 2009).

서울대에 관한 건축학적 연구는 주로 1975년 관악캠퍼스 조성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해 계획론적 참조점을 도출하는 것에 치중되어 왔다. 이는 관악캠퍼스 이전 후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 요구에 우선 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sup>. 한편, 대학캠퍼스에 대한 건축계획학적 연구를 본격화한 이영한의 연구는, 서울대를 포함해 한국의 대학공간의 유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주목된다(Lee, 1991). 그는 개항기부터 1975년까지 한국고등교육시설의 공간특성과 그 변천과정을 분석해, 일제시기에 미국 캠퍼스의 공간유형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가 해방 이후 독자적인 유형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성은 입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지형에 따른 캠퍼스의 배치와 팽창 형태의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park@snu.ac.kr)

이 연구는 2020년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1) Oh(1996)과 Choi(2017)의 연구는 이러한 경향에 따른다.

유형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일제시기의 유일한 관립대학에서 출발한 서울대의 특수성과 영향력을 간과한 채,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미국 혹은 유럽의 영향 아래 설립된 학교들<sup>2)</sup>을 주요대상으로 해 일반화를 시도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46~75년에 수립된 5개의 서울대 종합 캠퍼스 계획안들을 수집·분석했으며, 각 캠퍼스 계획 참여 인물들과의 인터뷰, 구술기록 등을 통해 계획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을 확보했다.(Table 1)

Table 1. The subjects of an analysis

Plan	Year	Planner
1 A Future Plan for SNU: Gongduk-ri Campus Plan	1958	Yoon, Chang-sup
2 The 5-year Plan for SNU: Dongsoong Campus Plan	1961	SNU Headquarter
3 The 6-year Plan for SNU: Dongsoong Campus Plan	1966	SNU Headquarter
4 The 10-year Plan for SNU: The 1 <sup>st</sup> Kwanak Campus Plan	1970	SNU, College of Engineering, Applied Science Research Institute, Urban and Architectural Research Lab.
5 The 10-year Plan for SNU: The 2 <sup>nd</sup> Kwanak Campus Plan	1971	DPUA

## 2. 서울대의 설립과 종합화의 요구

### 2.1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

조선총독부는 1922년 조선과 일본의 학제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의 2차 교육령을 공포하고, 1924년 일본의 제국대학을 모델로 해 경성제대를 설립했다. 이는 주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해, 식민지 조선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고 식민 통치에 순응적인 지식인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이었다(Jung et al., 2011).

해방 후 1946년, 미군정과 한국 문교관료<sup>3)</sup>는 새로운 국가와 사회의 건설을 위한 고등교육의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경성제대의 후신인 경성대학<sup>4)</sup>과 10개의 관·공립전문학교<sup>5)</sup>를 통합해 종합대학인 서울대를 설립했다. 종합대학은 19세기 중반 미국의 주립대학에서 시작된 것으로, 농학, 공학, 교육학 등의 도입을 통해 교육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대중적인 고등교육기관이었다(Lee, 2005). 그러나 전문학교와 동등하게 인식되기를 거부하는 제국대학 출신자들의 특권적 차별의식이 매우 공고했고, 주립대학과 동일하게 학교운영의 공공성을 위한 외부 이사회를 도입함에 따라, 자치권이 축소된 교수들이 서울대 설립을

보이콧하며 ‘국대안 파동’을 일으키는 등 학교 간 통합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Kang, 2003).

해방 공간에서 기존 교수진의 대거 월북을 초래하며 서울대의 설립은 강행되었으나, 구체제를 해체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는 그대로 실천될 수 없었다. 실질적으로 대학의 교육을 담당할 만한 인력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구체제 내에서 교육받은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 서울대는 일본식 교육체제의 연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무엇보다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했기에, 각 단과대학들은 서울의 내·외부를 아우르는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일체감이 거의 없는 느슨한 연합체로서 존재했다(Seoul National University Archives, 2016). 또한 전문학교로부터 전환된 단과대학은 대부분 소규모 부지 위의 단일건물에 위치했고, 경성대학의 시설과 같이 건물군으로 구성되어 보다 큰 규모를 갖는 경우에도, 소수 정예의 특정 분야의 관료를 육성했던 기관의 성격으로 인해 적은 수의 건물로 대청 등 조형적 배치에 치중해 조성되었기 때문에 종합대학의 대중적 규모와 복잡성을 수용하기 어려웠으며, 이로부터 새로운 학교공간이 요구되었다.

### 2.2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미국 지향의 재건

불완전한 출발 속에서 서울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이었다. 전쟁 중 교사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고, 각종 실험 기자재와 장서들이 피탈되었으며, 납북과 사망 등으로 교수진과 학생들이 감소해 학교는 종합화 이전에 존립 자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전후(戰後)의 혼란 속에서 정부는 서울대를 복구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이러한 위기는 미국의 냉전전략 속에서 해소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고자 유럽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각국에 군사·경제·교육 원조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소련의 첨예한 경쟁의 무대였던 한국은 그 중에서도 집중적인 원조의 대상이 되었다(Brazinsky, 2007). 서울대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내세워, FOA(대외사업처)의 한국에 대한 고등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대부분 독점하게 되었다(Bronfenbrenner, 1961). 이 과정에서 서울대는 1954~62년, 미네소타프로젝트<sup>6)</sup>를 통해 의학, 농학, 공학 등 실용적 기술분야 단과대학에 한해 학교 재건의 기초를 마련했다.

미네소타프로젝트는 서울대를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적 지향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전환되는 데에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다(Park, 2018). 원조의 집중 대상이었던 세 개의 단과대학은 미국식 교수법을 채택한 교수진과 미국식 교육 제도에 상응하는 교과과정과 도서, 기자재와 시설들을 갖추며 질적으로 변화했다. 무엇보다 지식의 주

2) 이 학교들의 캠퍼스 구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연구로는 Kim(2012)과 Paek&An(2018), Kim&Lee(2019) 등의 연구가 있다.

3) 오천석, 백낙준 등 미국 대학 출신의 인물이 주축이 되었다.

4) 경성제국대학은 1945년 12월 15일, 경성대학으로 전환되었다.

5)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치과의학교,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음악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등 10개 학교이다.

6) 미국 고등교육원조는 유니버시티 컨트랙트(University Contract)라는 미국과 우방국가의 대학 간 교류 형식을 띠었다. 서울대는 이를 통해 미네소타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미네소타프로젝트라 부른다. 이를 담당할 원조주체인 FOA(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대외사업처)는 1955년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국제협조처)로 전환된다.

입보다 응용이 강조되면서, 도서관을 비롯해 의대의 부속 병원, 농대의 연습림, 공대의 실험실 등 실험·실습 공간이 확충되며 대학공간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대학 전체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분산된 종합대학’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남겨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세 단과대학의 독립성을 강화해 종합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서울대가 차츰 정상화하면서 내부적으로 캠퍼스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요구가 확대되었고, 1958년 ‘종합계획수립위원회’<sup>7)</sup>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종합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 2.3 종합화를 위한 공간형식으로서의 ‘캠퍼스’

종합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형식이 필요했다. 그것은 미국 특유의 대학공간인 ‘캠퍼스’였다. 미국의 대학은 영국의 대학으로부터 기원했는데, 학교, 기숙사, 식당, 예배당 등이 잘 갖추어진 공간 내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며 공부한다는 학문공동체적 이상을 공유했다. 다만 영국의 대학은 도심에 입지하면서 내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폐쇄적인 클로이스터(cloister)를 전형으로 했는데, 이에 반해 미국의 대학은 교외의 넉넉한 평원에 여러 건물이 여유롭게 흩어져 목가적인 풍경을 이루는 독특한 형식을 발달시켰다. 따라서 이 공간은 필드(field)를 뜻하는 캠퍼스(campus)로 불렸다. 또한 학문 공동체를 이상으로 하는 학교 내에는 학생들의 사회적인 교류나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특히 중시되었는데, 이는 학문에만 집중하는 전통적인 유럽의 대학들과 구별되는 미국 대학만의 특성이었다. 캠퍼스는 미국식 민주주의적 이상을 구현하는 학원촌(academic village)으로서, 미국의 도시를 은유했다(Turner, 1984).

한편,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 미국의 캠퍼스는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1944년 퇴역군인들에 대한 고등교육지원법안(G.I.Bill)의 시행을 비롯해, 1960년대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학 진학으로 인해 미국의 대학생 수는 폭발적으로 급증했는데, 이에 따라 소수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대학이 빠르게 대중화했다. 또한 평생대학, 시민대학 등을 통해 교육의 수혜대상이 확장되면서 대학 구성원의 성격도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캠퍼스 계획 원리를 출현시켰다. 이전까지의 캠퍼스 계획은 건축의 논리에 기반을 두어, 필요에 따라 건물을 증축해나가면서 좌우대칭, 사변형(quadrangle)의 마당 등의 어휘를 통해 조형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배치계획을 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의 대중화로 인해 학교 건물의 대규모 증축을 비롯해,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해지면서, 캠퍼스 계획에는 도시 계획적인 논리가 요구되기 시작했다(Kim, 2006). 이는 건물과 외부공간의 조형 차원을 넘어 건축, 조경, 토목 등을 포

함한 유기적인 환경 조성의 차원에서 캠퍼스 계획을 다루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캠퍼스 계획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보차 도로망계획 등 도시 계획적 수법이 도입되는 한편, 대규모 건설의 효율화를 위해 적정공간의 수량적 산출방법이 개발되고, 모듈을 기초로 한 공간 계획 방법이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도시 계획가들 사이에서 기능적 도시 조성에서 탈피해 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sup>8)</sup>, 캠퍼스는 새로운 도시 계획의 주제들을 실험하고 적용하는 장이 되었다.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들에서도 고등 수요에 대한 열망이 확대되고 대학의 신설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캠퍼스 계획의 새로운 경향은 미국의 고등교육원조를 통해 그 우방 세계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 3. 서울대 종합캠퍼스 계획의 구상

### 3.1 최초의 종합캠퍼스 계획: 윤장섭의 ‘A Future Plan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최초의 서울대 종합캠퍼스 계획안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미국에서 수학의 기회를 얻은 젊은 건축공학과 교수로부터 나왔다. 서울대 건축공학과 조교수였던 윤장섭은 1958년 미국의 대외 원조처인 USOM의 주택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미(渡美)해, 2년간 MIT에서 유학했다(Jeon, 2019).<sup>9)</sup> 그는 1959년 ‘A Future Plan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이것은 대학 차원에서 행해진 공식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최초의 서울대 종합캠퍼스 계획안이었다. 그는 논문에서 ‘이 계획은 후일, 정부와 의회의 협조를 얻고 학교 재산의 처분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실현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종합 캠퍼스 건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선행연구임을 밝히고 있다.

먼저, 그는 종합캠퍼스 조성을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1)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종합캠퍼스를 조성하는 것, 2)공덕리 공대 캠퍼스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 기존의 공대 건물들을 포함한 종합캠퍼스를 조성하는 것, 3)동승동 문리대 캠퍼스에 약간의 조치를 더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2)안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공덕리 캠퍼스를 부지로 해 계획안을 제시했다.

구(舊)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캠퍼스였던 공덕리 캠퍼스

8) 미국 하버드 GSD의 서트(J.L.Sert), 기디온(S.Giedion), 그로피우스(W.Gropius) 등이 주축이 되어 개최된 1951년의 CIAM(Congrès International d'Architecture Moderne)의 8차 회의는 2차 대전 이후 세계적인 재건의 흐름 속에서 인간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International Congresses for Modern Architecture, 1952).

9) 미네소타 프로젝트 당시, 건축공학과는 공대 내 다른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았다(Babbitt, 1961). 윤장섭, 이광노 등 그 외의 서울대 교수들은 USOM, 한미재단 등을 통한 다른 기회를 이용해 미국에서 수학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7) 윤일선 총장과 유기천 등을 비롯, 신태환, 권오익, 현제명, 이종수 등 단과대학장으로 구성되어, 1959년 스투타드의 건의를 심의하고, 1961년 「서울대학교 종합5개년계획안」을 수립했다.

는 당시 서울에서 약 10km 정도 벗어난 교외에 위치해, 수려한 자연경관과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 독립된 캠퍼스를 조성하기에 이상적이었다. 또한 1942~43년에 조성된 이공학부의 건물 중, 지상 7층 높이의 시계탑을 비롯해 1, 2호관의 큰 규모와 현대적인 외관은 당시에 드문 것이어서<sup>10)</sup>, 이를 존속시키면서 종합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은 상징성이나 활용성의 면에서 여러 편익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윤장섭은 기존 캠퍼스의 1,2,4호관을 남긴 채, 새 캠퍼스 계획안을 제시했다. (Figur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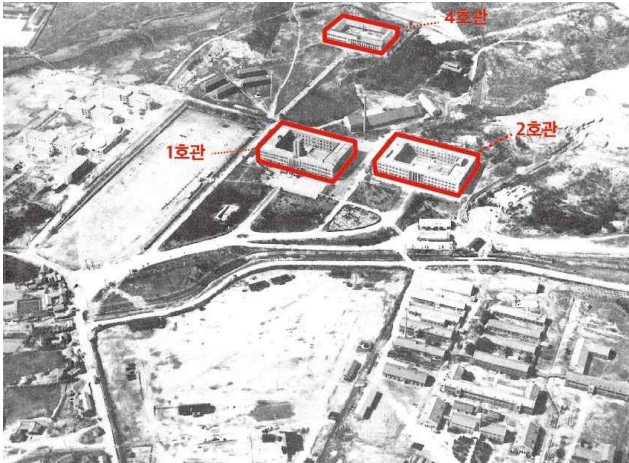


Figure 1. The SNU's Gonduk-ri Campus in 1965,  
Edited by the authors

(sou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4). *The 40-year History of the College of Engineering, SNU*, SNU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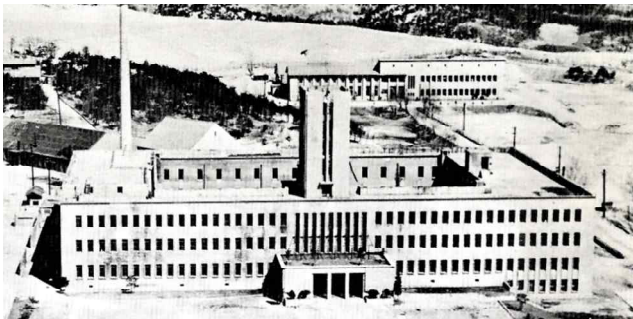


Figure 2. The Building No.1 at the College of Engineering, SNU (source: Same as Figure 1)

윤장섭은 먼저 모든 단과대학이 종합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총 학생의 주(週)당 체류시간을 기초로 약 12,000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각 단과대학별 필요 연면적을 추산했다.

그리고 그는 캠퍼스 내에 교육뿐만 아니라, 주거, 체육, 사회적 교류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에 따

10) 이와 관련해 윤승중은 고등학생 시절인 1955년, 공덕리 공대 캠퍼스를 답사했던 경험을 구술했는데, ‘별관에 반도호텔만한 거대한 건물 2개가 서 있는 광경에 대단히 놀랐으며, 대학의 건물이란 그 정도로 큰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고 했다 (Jeon, Woo & Choi, 2014, p.64). 1, 2호관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드문 철근콘크리트조의 대형건물(정면길이 약 92m, 측면길이 약 54m, 높이 3층)로, 조선총독부, 반도호텔 다음으로 큰 규모였다.

라 학교 건물과 공지로만 이루어져 있던 부지 위에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중앙난방과 도보가 가능하도록 발전소로부터 2,500척(약 760m) 반경 내 영역을 건축영역으로 설정하고, 그 내부에 교육·주거·체육영역을 구분 배치했다. 캠퍼스 중심에는 본부, 도서관, 학생회관과 강당 등 공동시설이 집중된 코어(Common Core)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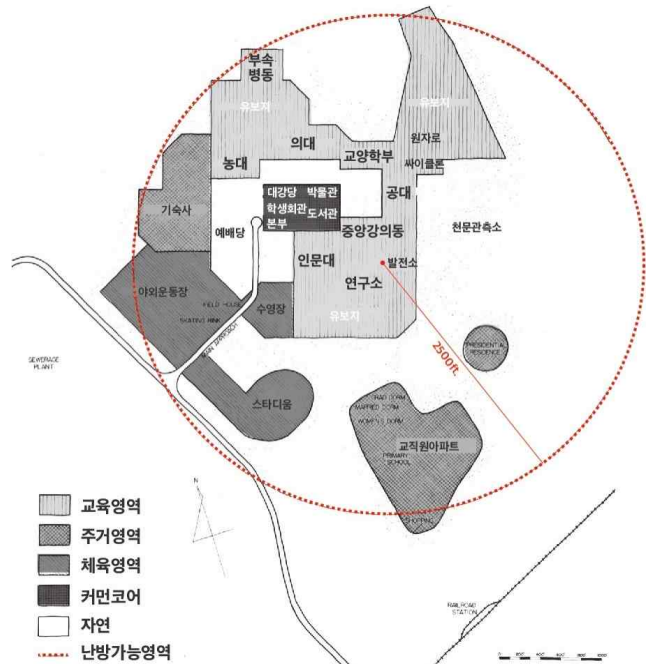


Figure 3. The Zoning Diagram of Yoon's Campus Plan,  
Edited by the authors (source: Yoon, C. (1959). *A Future Plan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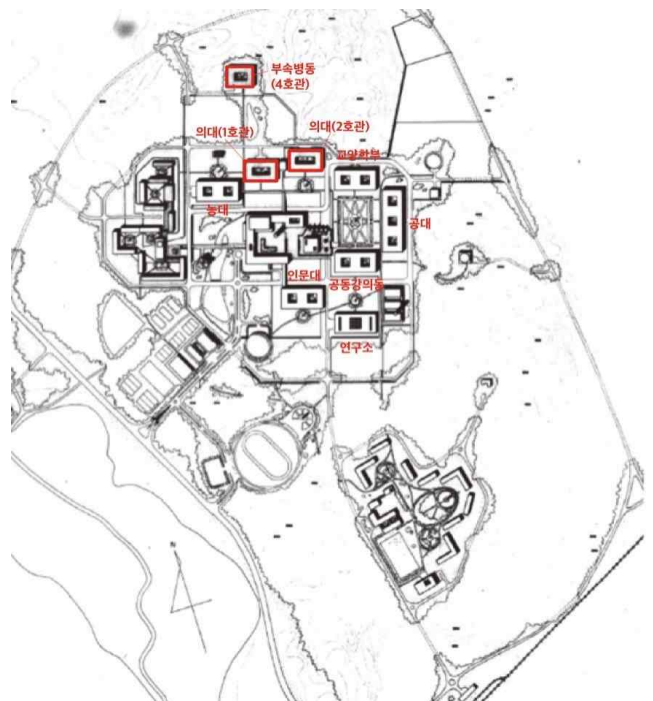


Figure 4. The Layout Plan of Yoon's Campus Plan, Edited by the authors (source: Same as Figure 3)

설정했고, 주진입로를 통해 맞이하게 되는 대표공간이 되도록 했다.(Figure 3) 그리고 각 기능별 영역에 건물들을 배치하고, 이들 사이에는 도로망을 조성했는데, 내·외부 순환로를 두어 차량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영역에서는 학문적 유사성에 따라 각 단과대학들을 인접 배치하되 각각 독립된 건물 내에 수용되도록 했다. 새 강의동은 단과대학별 필요면적을 반영해, 기존의 1, 2, 4호관보다 더 큰 규모로 계획되었다.(Figure 4)

이 계획안에서 윤장섭은 적절한 캠퍼스의 규모와 내·외부 공간의 스케일을 설정하는 것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이를 위해 옥스퍼드대, 하버드대, MIT 등 주요 대학의 배치를 비롯해,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의 여러 캠퍼스 계획안의 배치를 참조했다.<sup>11)</sup> 그로피우스는 미국의 캠퍼스 공간의 방대함에서 비롯되는 친밀한 장소 감각의 상실을 클러스터링을 통한 휴먼스케일의 외부공간 조성으로 보완하고자 했는데(International Congresses for Modern Architecture, 1952, pp.53-55), 그의 지도에 의해 논문을 작성한 윤장섭은 동일한 의도를 계획안에 적용했다. 그는 강의동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적절한 위요감과 고유성을 갖는 외부마당을 조성했다. 또한 기존의 건물과 형태적으로 일체감을 갖도록 새 강의동을 □자형의 건물로 계획하면서, 분할된 중정 공간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그가 계획한 캠퍼스는 기존 캠퍼스와는 달리 대형 건물들과 그에 의해 조성되는 적절한 스케일의 외부마당 및 중정으로 구성된 유기적인 경관을 보여주었다.(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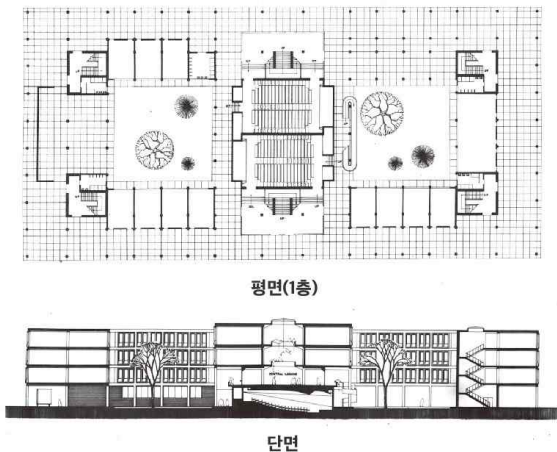


Figure 5. A Plan and Section of Typical Classroom Building of Yoon's Campus Plan (source: Same as Figure 3)

1958~59년, 윤장섭에게 MIT에의 유학은 마침 미국에서 급변기에 돌입한 최신 캠퍼스 계획론을 접하고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는 동시대 도시계획의 전향된 흐름을 반영한 캠퍼스 계획 원리를 기초로 서울대 종합

11) 윤장섭은 논문 서두에서 그로피우스가 논문의 기본 접근 방향을 지도해 주었음을 밝히면서, 그로피우스가 계획한 캠퍼스를 비롯, 여러 대학 캠퍼스의 배치도를 피겨 앤 그라운드(figure and ground) 방식으로 검토한 뒤, 적절한 캠퍼스의 크기와 내·외부 공간의 스케일을 설정하려 했다(Yoon, 1958, p.97-103). 그는 당시의 그로피우스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 에세이에서 솔직한 바 있다.

캠퍼스 계획안을 완성했다. 종합캠퍼스와 같이 도시적 속성을 갖는 대형시설이 아직 조성된 적이 없고 ‘마스터플랜’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당시의 한국에서, 윤장섭의 계획안은 한국인에 의한 첫 현대적 캠퍼스 계획이자 도시계획적 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

귀국 후, 서울대에 복귀한 윤장섭은 1961년 5월 「서울대학교 종합5개년계획」이 발표된 직후, 대학신문에 「서울대학교 종합계획을 위한 건의」라는 컬럼을 연재하면서<sup>12)</sup>, 이 계획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대외적으로 공유한다. 그러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그의 이상적인 계획안은 그대로 실행되기 어려웠다.

### 3.2 현실과의 절충 : 두 개의 동승동 메인캠퍼스 계획

실질적인 종합캠퍼스 계획의 수립은 미국의 고등교육 원조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미네소타프로젝트 이후, 미국대학의 교육행정 전문가들이 본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종합화계획을 자문했는데, 이들 중에는 1940~50년대에 캠퍼스 확장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저명한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우선, 1960년 미네소타대의 미들브룩(William T. Middlebrook)<sup>13)</sup>은 서울대 캠퍼스의 물리적 분산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미 많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 농·공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 대학이 문리대와 의대를 중심으로 한 교지 안에 모인 종합캠퍼스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Middlebrook, 1960). 이듬해에는 뉴욕대의 스톡다드(George D. Stoddard)<sup>14)</sup>의 건의를 반영해 「서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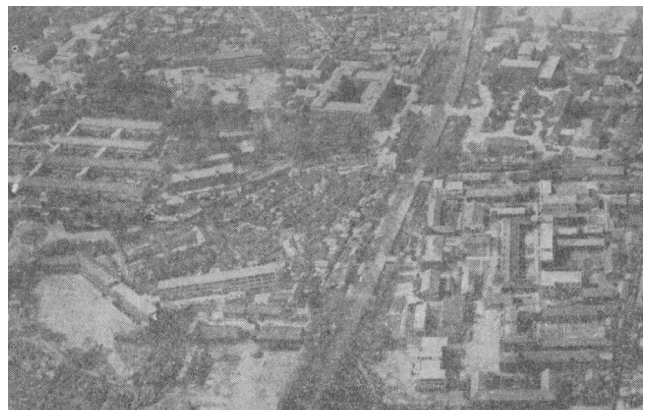


Figure 6. The SNU's Dongsoong-dong Campus in 1965 (source: Unknown. (1965, January 4). A University District Looking Down from a Thousand Feet, *SNU Press*. p.1.)

12) Yoon, C. (1961, May 11). A Proposal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s Centralization Plan, *SNU Press*, p.3.; Yoon, C. (1961, May 22). A Proposal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s Centralization Plan, *SNU Press*, p.3.; Yoon, C. (1961, May 29). A Proposal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s Centralization Plan, *SNU Press*, p.3.

13) 미국의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1925~59년에 미네소타대학 감사원장과 부총장을 역임했다. 재임기간 동안 교내 기숙사 체계를 확립하고 캠퍼스 확장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1960년 「한국고등교육실태보고서」를 작성했다.

14) 당시 뉴욕대 총장으로서, 미들브룩과 함께 한국고등교육실태 조사단의 공동의장을 담당했다. 교과과정과 학교행정의 재편을 연구한 교육학자로서, 1946년 일본 교육제도 개정을 주도했다.

학교 종합5개년계획」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사범대가 독립되었다는 점 외에는 미들브룩의 제안과 거의 비슷한 방향을 담고 있었다.

이 계획에서는 동승동·연건동 일대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 본부를 중심으로 단과대학들을 집중 배치하고 ‘한국 최대의 학생회관’을 비롯해 대강당, 종합운동장 등을 신설해 메인 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했다.<sup>15)</sup> 각 단과대학들은 ‘동일계 대학의 동일지 집중’의 원칙에 따라 배치되었다.(Figure 7) 의대를 중심으로 한 연건동에는 치대·약대가 배치되어 ‘의약계’를 이루고, 문리대와 법대를 중심으로 한 동승동에는 상대·음대·미대가 배치되어 ‘인문·사회계’를 이루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예산상의 문제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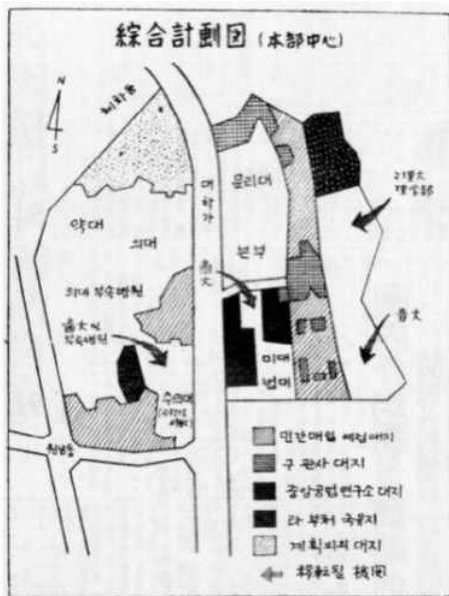


Figure 7. The Main Campus Plan in the 5-year Plan for SNU (sou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ilation Committee. (2006).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1946*, Seoul, SNU Press.)

이에 따라 1966년에는 「서울대학교 종합6개년계획」이 재수립된다<sup>16)</sup>.(Figure 8) 이 계획안은 유타대의 올핀(A.Ray Olpin)<sup>17)</sup>의 건의에 의거해, 역시 동승동에 메인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했다. 계획안은 이전보다 구체화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적 의도가 드러났다. 우선 메인 캠퍼스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거리(지금의 대학로)를 캠퍼스의 주요 축으로 삼아 본부(①)와 학생회관(⑪), 도서관(⑱), 대강당(㉕) 등을 증축해 코어 영역을 조성하고자 했다. 그 주변에는 역시 각 단과대학을 학문적 유사성에 따라 분류되어 배치했고, 최외곽에는 기숙사(⑧)를 계획해

캠퍼스 내 주거영역의 구색을 갖추었다. 또한 캠퍼스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에 더해 외곽을 둘러싼 순환도로를 신설해 본부 및 각 단과대학에의 차량 접근 동선을 계획했다. 이는 미국 도심부의 대학들이 독립된 캠퍼스의 경계를 갖지 않고 도로와 광장과 같은 주변의 도시 시설들을 캠퍼스 시설로 활용하며 느슨하게 연계된 건물들의 증축을 통해 대학 팽창의 요구를 수용해 나가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캠퍼스는 확대하되 체계적 질서를 갖는 외부공간의 계획은 불가능한 시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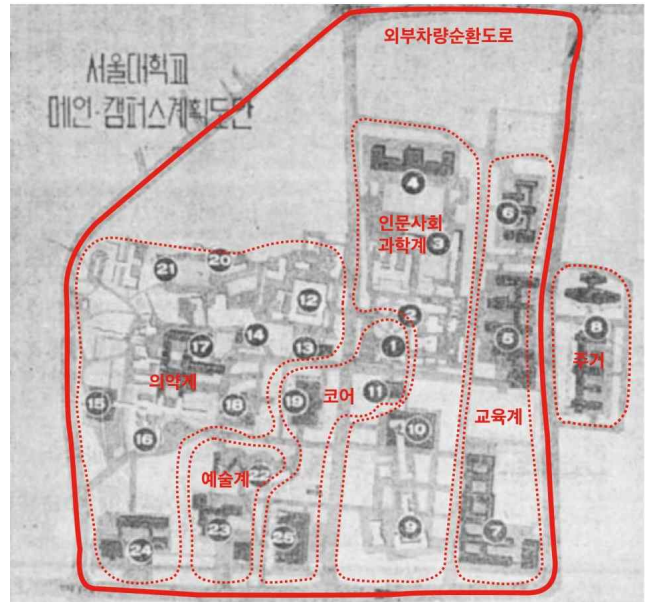


Figure 8. The Main Campus Plan in the 6-year Plan for SNU, Edited by the authors (source: Same as Figure 7)

동승동과 연건동을 중심으로 한 1961년과 1966년의 두 종합캠퍼스 계획안은 과거의 경성시대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주요시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 4. 서울대 종합캠퍼스 계획의 실현

##### 4.1 이상의 현실화 : 1차 관악 캠퍼스 계획

1960년대 후반 한국은 1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과 가시화, 1965년 베트남전 파병과 한·일 수교, 1966년 외자도입법의 개정 등으로 시중에 외화가 풀리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했다(Song, 2017). 1960년대 후반~70년대에는 서울의 대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동양최대’의 국가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출현했다(Sung & Jeon, 201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대의 종합화 시도는 뜻밖의 방향으로 가속되었다. 이전까지 미온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는 고등교육시설의 정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1967년 서울대 종합계획안의 보고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대를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계획’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동양최대의 캠퍼스’가 되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수립된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

15) Unknown. (1965, January 4). A Springboard for Prosperity, SNU Press, p.1.

16) 유기천 총장이 재임하던 1966년 2월 설치된 ‘계획위원회’의 ‘기획처’에 의해 수행되었다.

17) 당시 유타대 명예총장으로서, 서울대학교 발전고문을 역임했다. 그가 유타대 7대 총장으로 재임하는 1946-64년, 학생수 폭증에 따른 캠퍼스 확장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계획」은 동숭동캠퍼스를 활용하고자 했던 이전의 두 계획들과 달리 의·농대를 제외하고 모든 단과대학을 새로운 부지로 이전해 종합화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8)<sup>18)</sup>. 여기에서는 운장섭의 계획안과 동일하게 공동동<sup>19)</sup> 공대 캠퍼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수원, 안양, 시흥 등 여러 부지가 검토되었으며, 공대 인근의 태릉 일대가 최종 종합캠퍼스 부지로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에는 이를 번복하고, 한강 이남 개발을 추진했던 박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종합캠퍼스 부지를 관악 컨트리클럽 일대로 확정하게 된다.(Figure 9)



Figure 9. The Scenery of Gwanak Country Club (sou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rchives. (2016). *Rise of Knowledge and Dynamic Era: Special Exhibition Celebrates 70th Annivers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NUA)

1970년 4월, 캠퍼스 종합건설계획의 추진체로서 ‘서울대학교 건설본부’가 설치되었다<sup>20)</sup>. 그리고 같은 해 김희춘의 책임 아래<sup>21)</sup>, 윤정섭, 주중원 등 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진과 조창걸, 김석철, 박성규, 변용 등 동(同)대학 졸업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응용과학연구소(응용과학연구소)’가 관악 부지를 대상으로 종합캠퍼스 계획을 담당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도한 조창걸과 김석철은 국내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를 다소 경험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젊은 건축가들이었기 때문에, 종합캠퍼스라는 시설의 계획이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한 달여의 기간, 미국대사관의 도서관 등을 통해 해외의 관련 서적들을 접하고 캠퍼스 계획론을 학습했으며,<sup>22)</sup> 같은 해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수립보고서」를 작성했다.

18) 대통령 보고를 수행했던 최문환 총장 휘하, 본부의 ‘계획조사과’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수행했다.

19) 공덕리와 태릉 인근은 1963년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공동동(孔陵洞)으로 법정동화했다.

20)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은 아카데미플랜을 담당하는 ‘교육연구 및 기구조직분과위원회’와 캠퍼스종합건설계획을 담당하는 ‘시설분과위원회’의 두 축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후자가 본격화해 서울대학교 건설본부로서 설치되었다.

21) 응용과학연구소라는 하나의 명의 아래, 김희춘, 이광노, 윤장섭 등 당시 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들이 시기와 영향력을 달리하며 캠퍼스 계획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22) 김석철은 종합캠퍼스 계획을 위해 1963년 출간된 도버(Richard P. Dober)의 저서인 『Campus Planning』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숙지했다고 구술했다(Kim & Oh, 2014, p.115).

응용과학연구소의 종합캠퍼스 계획안은 캠퍼스 내 필요공간의 수량적 산출,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코어의 강조, 차량교통의 도입 등 운장섭의 계획안에서 등장했던 도시계획적 접근방식을 두루 수용했다. 코어로의 주진입 여정이나 단과대학별로 독립된 대형건물을 이루는 방식 등도 운장섭의 제안과 유사했다.

그러나 이 계획안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외부공간의 성격은 운장섭의 계획안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상이했다. 이들은 적절한 위요를 통해 외부공간을 체계화하기 보다는, 공동동 캠퍼스의 본래 경관과 같이 개방적인 외부공간 위에서 건물 자체를 부각시키고자 했다.(Figure 10,11) 이들은 컨트리클럽의 완만한 페어웨이와 워터해저드<sup>23)</sup>등이 이루는 유려한 풍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넓은 동간 간격을 두고 경사지에 고층 대형 건물을 배치했다. 각 단과대학 건물들은 개성적인 형태를 가지며 일체감보다는 개별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캠퍼스의 중심영역인 코어에서는 최고층<sup>24)</sup>의 거대한 인문사회과학부 건물이 중심축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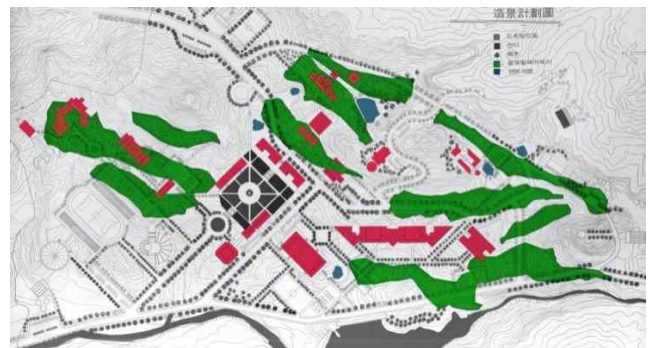


Figure 10. The Layout Plan of Applied Science Research Institute's Campus Plan : Fairway(Green), Water Hazard(Blue), Buildings(Red), Edited by the authors (sou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Applied Science Research Institute, Urban and Architectural Research Lab. (1970).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pus Master Plan*, Seoul, SNU, CE, ASRI, UA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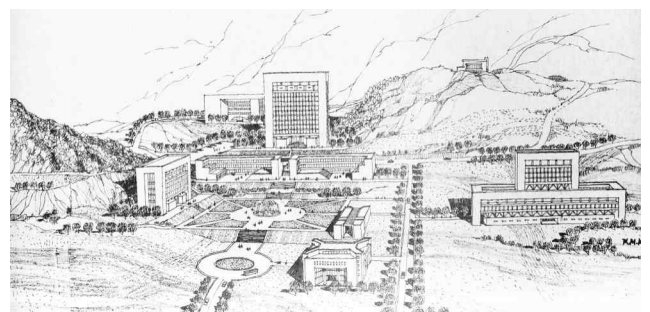


Figure 11. The View from Main Approach of ASRI's Campus Plan, Drawn by Kim, Jin-kyoon (source: Same as Figure 10)

23) 페어웨이(fairway)는 골프에서 티 샷 위치(출발점)에서 그린(도달점) 사이의 잘 다듬어진 잔디구역을 의미하며, 워터 해저드(water hazard)는 골프 코스 내에 호수, 연못, 강 따위의 물이 있는 장애지역을 의미한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24) 인문사회과학부 건물은 1970년 당시 건축법 상, 관악 캠퍼스 부지가 속한 지역에서 허용되는 최고 층수인 13층으로 계획되었다.

점에 배치되어 캠퍼스의 인상을 압도했다. 이 계획안은 광활한 녹지 위에 다양한 형태의 대형 건물들이 느슨하게 산재하는 경관을 연출했다.(Figure 12)



Figure 12. The Bird's-eye View of ASRI's Campus Plan, Drawn by Cho, Chang-gul.

(source: Presented by Kim Byeong-ju, th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Kyeong-il University)

이 계획안은 응용과학연구소의 건축가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공릉동 공대 캠퍼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관악캠퍼스에서 코어의 중심축을 따라 타워형의 건물을 향해 진입하는 경험은 공릉동 캠퍼스의 공대 1호관의 시계탑을 향해 진입하는 경험과 닮았으며, 페어웨이를 보존한 외부공간은 공대 캠퍼스의 별관을 채우던 잔디밭<sup>25)</sup>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건물 자체에 집중해 상호관계에 무관심한 배치는 공대 1, 2, 4호관이 이루는 풍경과 유사하다. 여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학의 건물이란 무릇 ‘고등’의 격을 드러낼 수 있는 큰 규모로 지어져야 하는 것, 이국적인 초원의 경관은 근사한 것이라는 관념과 외부 공간의 유기적 구성보다는 건물의 조성이 우선하는 건축계획적 논리의 습성이 바탕에 있었다. 그들은 외부공간의 체계적 구성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적 원리를 완전히 체화하지 못한 채, 그들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공간적 형태와 방법을 통해 물리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 4.2 최종 캠퍼스 계획 : 2차 관악캠퍼스 계획안

응용과학연구소가 서울대 종합캠퍼스 계획의 초안을 완성한 뒤, 건설분부는 서울대에 도서, 연구, 출판 등을 지원해 오던 아세아재단<sup>26)</sup>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저명한 캠퍼스계획 용역단인 Dober, Paddock, Upton & Associate (DPUA)<sup>27)</sup>에 자문을 요청했다.

25) 윤승중과 김정식은 공릉동 공대 캠퍼스에 대한 회고에서, ‘외국 도시에나 있을 법한 잔디밭이 정말 멋있고 좋았다’고 기억했다 (Jeon, Woo & Choi, 2014, p.72).

26) 아세아재단(The Asia Foundations)은 냉전기에 아시아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문화원조사업을 수행했던 미국의 민간원조기구이다. 한국에서의 대표사업으로 출판사 용지공급,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활동 지원 등이 있다(Lee, 2016).

27) DPUA는 하버드 GSD 출신의 도시계획가인 도버(Richard. P. Dober)와 건축가인 패덕(James A. Paddock), 전문경영인인 업튼(Upton)을 주축으로 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컨설

DPUA는 응용과학연구소의 계획안이 현실적인 아카데미 플랜이나 부지의 현황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재한 채 몽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전면 수정해 최종계획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그들은 김형만, 임충신, 이규목, 신국범 등 도시계획 및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인 카운터파트팀과 함께 제반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시작으로 계획을 수행했다. 영미권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었던 김형만과 임충신은 미국팀과의 협업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sup>28)</sup>

이들의 계획안은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토대로 계획논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계획자의 주관에 기반해 특징한 시각적인 형태를 재현하고자 한 응용과학연구소의 접근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시설의 전수조사와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최적의 공사 규모를 산출해냈다. 또한 지리, 지질과 기후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sup>29)</sup>, 가장 경제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영역을 도출해 내고, 북사면에 위치한 부지의 단점을 해소하고 계절별 통풍을 최적화할 수 있는 ㄷ자형의 건물 배치, 불리한 일사(日射)를 조정할 수 있는 의장 등 구체적인 계획 논리를 구성해나갔다. 이들은 조형적 감각이나 관념이 아닌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논리가 캠퍼스를 조직하도록 했다.(Figure 13, 14)



Figure 13. The Buildable Areas Calculated from the Geological Data of DPUA's Campus Plan

(sou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struction Headquarters. (1972).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pus Master Plan*, Seoul, SNU Press.)

팅 회사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폭발하는 고등교육의 수요와 캠퍼스 확장 경향을 기회로 급성장했다. 자유세계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캠퍼스 계획을 수행했다. (출처: 이규목 인터뷰 및 Dober Lidsky Mathey 홈페이지, <http://dlmplanners.com>)

28) 1971년 DPUA의 카운터파트로서 참여했던 임충신은 본 연구 관련 인터뷰에서, 카운터파트팀은 DPUA가 의뢰한 지역조사를 수행하거나 통역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고 했다. DPUA는 한국에 체류하는 2개월간 매우 효율적으로 일했으며, 그들과 카운터파트팀 간의 상호의견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29) 1971~74년 DPUA의 카운터파트로서 참여했던 이규목은 본 연구 관련 인터뷰에서, 당시 미국팀의 스태프 중 스토퍼(Stauffer)라는 인물이 주도한 부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가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스토퍼는 ‘중첩법’이라는 GIS의 개념을 고안한 도시계획가 이안 맥하그(Ian McHarg)의 제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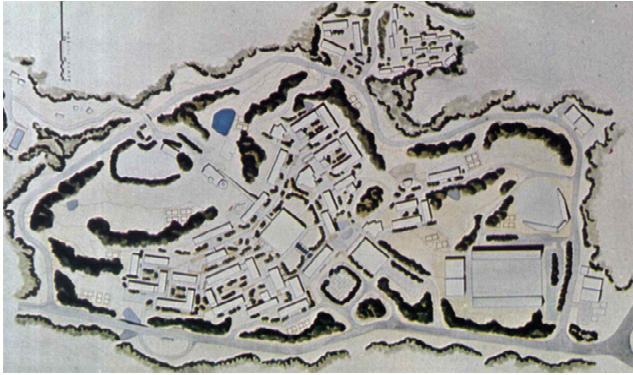


Figure 14. The Layout Plan of DPUA's Campus Plan  
(source: Same as Figure 13)

이에 더해 이들은 한국 특유의 산세가 이루는 경관에 주목하고 이를 보존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국을 흉내 낸 페어웨이의 경관보다는 고유한 지역색을 드러내는 산의 경관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캠퍼스 내의 모든 건물은 5층 이하의 저층으로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고, 건축가능영역 내에 필요공간을 수용하기 위해 고밀도의 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들은 오랫동안 지역의 풍토와 문화 속에서 발전해온 전통적인 건축수법에 합리성이 깃들어 있다고 보아 이를 캠퍼스 계획에 응용하고자 했다<sup>30)</sup>. 먼저 전통적인 조경 수법을 응용해, 경사지를 정지(整地)하고 테라스와 계단 등의 형식을 도입해 동선을 계획했다. 또한 상승하는 중심축에 주요 건물이 위치하면서 양쪽에 부속적인 지위의 건물군이 도열하는 한국 산사(山寺)의 가람배치를 응용해, 본부와 도서관을 중심축으로 양쪽에 단과대학들의 클러스터가 단차를 두고 위치하도록 했다. 각 단과대학들은 장면에 정면을 갖는 선형의 건물들이 마당을 에워싸도록 배치되었는데, 이 역시 한국 전통건축에서 흔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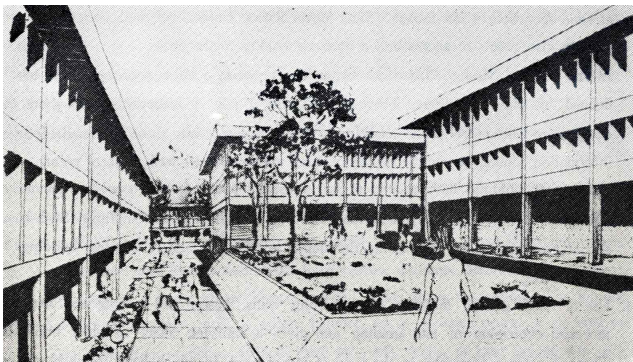


Figure 15. The Perspective of Inner Court with Traditional Colonnades in DPUA's Campus Plan  
(source: Same as Figure 13)

30) 도버는 다양한 국가에서 캠퍼스 계획을 수행했는데,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와 풍토, 경제적 상황과 문화적 전통을 지닌 지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미국 캠퍼스의 해법을 어디에서나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체득했다. 그는 캠퍼스 계획에 있어서, 문화적 감수성을 발휘해 지역의 상황에 합당한 해법을 도출할 것을 강조했다.(Dober, 1982)



Figure 16. The Podium in front of SNU Headquarters Designed in Traditional Korean Style  
(sou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struction Headquarters. (1975). *Campus Construction Repo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NU Press)

목격되는 방식이었다. 그 외에도 기단, 저층부의 주랑(柱廊), 처마와 벽면의 의장 등 한국의 고유한 건축 요소를 건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sup>31)</sup>.(Figure 15, 16)

이에 따라 DPUA의 최종계획안은 응용과학연구소의 계획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물론 그 내면에는 앞선 계획들에 적용된 공통적인 도시계획적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운장섭의 계획안과 같이 체계적인 외부공간을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되, 보다 적극적으로 단과대학간 연계와 교섭이 일어나도록 했다. 선형의 저층 건물들로 구성된 클러스터가 단과대학별로 분절된 외부공간을 형성하면서도, 이 공간들이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단과대학 간 상호통행이 가능한 구조를 이루었다. 이에 더해 DPUA는 지역의 조건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중시했다. 이들은 정부나 응용과학연구소의 건축가들이 지향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최대의 대학’이라는 상징적인 관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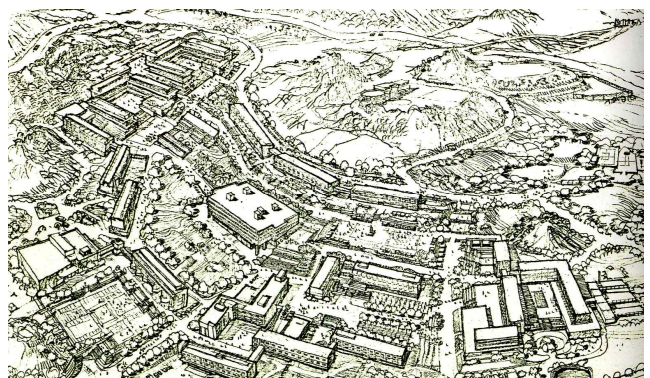


Figure 17. The Bird's-eye View of DPUA's Campus Plan, Drawn by Kim, Jin-kyoon (source: Kim, J. & Choi, W. (2012). *Kim, Jin-kyoon + His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rchitectural Environment Design Lab., SNU, AEDL.*)

31) 1970-71년 응용과학연구소에서 투시도를 담당했던 김진균은 본 연구관련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역성을 적용하자는 DPUA의 제안이 당시 건축가들의 모더니즘 지향 속에서는 뜻밖의 새로운 태도로 느껴졌다고 술회했다.

을 물리적인 환경에 투영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지역 경관의 존중과 경제적·기술적 실현가능성(feasibility)의 논리에 의거해 강의동 건물들은 낮고 긴 평범한 건물들로 제한되었다. 또한 이들에게는 이국적인 경관에 대한 동경도 없었다. 전통적인 조경수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아 외부공간에는 너른 잔디밭 대신 석축과 기단, 포장석이 등장했다. 이로부터 DPUA의 서울대 종합캠퍼스 계획안은 한국에서 처음 시도된 지역주의적 캠퍼스 계획안이자 환경 계획안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Figure 17)



Figure 18. The SNU's Kwanak Campus in 1976  
(sourc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o. CET0046366)

1971년 12월, DPUA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서울대 종합캠퍼스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리고 1975년 1월, 캠퍼스 이전이 시작되면서, 서울대는 비로소 일제시기의 제국대학의 공간을 떠나 종합화된 대학으로서의 체제와 공간 모두를 온전히 실현하게 되었다.(Figure 18)

#### 4.3 종합캠퍼스 계획과정의 의의

1958년 윤장섭으로부터 시작된 서울대 종합캠퍼스 계획안은 여러 계획안을 거쳐 1971년 미국의 캠퍼스 계획가인 DPUA의 최종 계획안으로 발전되었다. 이 과정은 미국의 직·간접적인 영향 속에서 도입된 동시대의 도시 계획적인 캠퍼스 계획원리가 어떻게 소화되어 가는지 보여준다.(Table 2)

윤장섭은 서울 교외의 공대 캠퍼스 부지 위에서 신구(新舊)건물을 조화시키면서 적절한 스케일을 갖는 외부공간의 체계를 조성하고자 했다. 하나의 단과대학이 하나의 건물에 전부 수용되도록 대형 건물을 제안했는데, 기존의 건물과 같이 모자형으로 계획해 내부에 친밀한 스케일의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대형 건물들은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넓지만 적절한 위요감을 지닌 단과대학간 외부공간을 형성했다. 그의 계획안은 육중한 규모의 건물을 통해 대학의 권위를 보여주려 한 기존 캠퍼스의 태도를 계승하면서도, 건물이 외부공간과 맺고 있는 관계에 보다 집중했으며 이를 체계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교육 행정가들의 자문 아래, 실제로 진행된 계획은 동승동캠퍼스 주변의 시가지에 건물을 증축해 용도구역을 차츰 조성해나아가거나, 기존의 도로망을 캠퍼스용 도로망으로 해석해 이용하면서 캠퍼스의 공간 구조를 최대한 비슷하게 갖추어 나가는 절충적인 방식이었다. 이는 우선 확보된 대지의 조건에 맞추어 필요한 규모의 건물을 짓는 것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체계적 질서를 갖는 외부공간의 계획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Table 2. Comparison of SNU's Campus Plans

Plan	A Future Plan for SNU: Gongduk-ri Campus Plan (1958)	The 6-year Plan for SNU: Dongsong Campus Plan (1966)	The 10-year Plan for SNU: The 1 <sup>st</sup> Kwanak Campus Plan (1970)	The 10-year Plan for SNU: The 2 <sup>nd</sup> Kwanak Campus Plan (1971, Final Plan)
Layout (on the same scale)				
Goals	Create well-organized space with harmonious system	Create as campus-like space as possible under realistic conditions	Create monumental space to represent the status of great national institutions	Create a systemized environment suitable for locality
Principles of Design	·Creating outer space with proper scale and interrelation ·Pursuit of the harmony between old and new buildings	·Building while accepting the surrounding conditions ·Utilization of surrounding urban facilities as campus facilities	·Maximum conservation of green open space(fairways of golf courses) ·Pursuit of high-rise and large scale for the monumentality	·Creating space optimized for climate, geological and geographical conditions ·Pursuit of low-rise for the protection of mountain scape ·Application of local traditional architectural method
Method for creating outer space	Divide and organize the outer space by clustering multiple large buildings with quadrangle	Create irregular outer spaces as constructing new buildings	Leave the outer space undivided	Divide and organize the outer space by clustering multiple low-rise linear buildings

1960년대 말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작되면서, 종합캠퍼스를 수용할 수 있는 새 부지가 마련되었다. 서울 외곽의 관악 컨트리클럽을 부지로 해 진행된 캠퍼스 계획에서, 서울대 응용과학연구소의 건축가들은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국립대학의 상징적인 위상이 표현되도록 각 건물의 고층화, 대형화를 추구해, 건축물 자체가 부각되도록 했다. 각 단과대학들은 개성적인 형태의 하나의 독립된 건물 내에 수용되면서 개별성이 강조되었으며, 건물을 뺀 나머지 외부공간은 기존의 페어웨이를 보존한 것으로 특정한 질서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는 계획자가 외부공간의 체계적 구성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적 원리를 완전히 체화하지 못한 채, 여전히 건축계획적 논리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DPUA는 이 계획안을 수정해 최종 캠퍼스 계획안을 작성했다. 이들은 지역성에 적합한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역의 기후, 지질, 지리 등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환경에 최적화된 계획 방향을 도출하는 한편,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저층의 건물을 제안하고, 경사 지형을 다루는 전통건축수법을 적용하고자 했다. 여러 개의 선형건물들의 클러스터가 단과대학별 외부공간을 형성했고, 이 클러스터들은 도서관과 본부 등이 위치한 코어의 주변에 도열해 한국 산사(山寺)의 가람배치와 같은 외부공간의 체계를 만들어 냈다. 이들은 응용과학연구소의 건축가들과 달리 건물 자체보다 체계적이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외부 환경의 조성에 집중했다.

운장섬 계획안에서 처음 등장한 외부공간에 대한 관심은, 현실적인 제약과 계획가의 관점에 의한 저항을 거쳐 DPUA의 계획안에서 다시 부활했으며, 이를 체화하기 위한 시간을 거치면서 적절한 스케일 조성과 체계화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구현하는 차원으로 진화했다. 이들은 지역의 조건 속에서 그 성능이 검증된 도구로서 전통건축수법을 기용하고자 했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국가주의·민족주의적 전통양식의 차용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합리적인 태도였다. 이는 1973-75년 관악캠퍼스 건설 2단계에 진행된 김수근의 예술대학 계획을 통해 보다 발전했는데, 그는 부지의 지형에 대응해 휴먼스케일을 지니면서, 불규칙성을 통해 자연스러움을 추

구하고, 시퀀스를 통해 다양한 공간을 연출하는 등 전통건축수법의 기계적인 적용을 넘어서는 수월한 해법을 보여주었다(Jung, 2000).(Figure 19)

## 5. 결 론

서울대의 관악캠퍼스 이전은 1960-70년대에 학생운동의 역제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수행되었다고 회화되곤 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종합캠퍼스의 조성은 학교가 설립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며, 이는 일제시기의 제국대학을 모태로 한 서울대가 미국식 종합대학으로 전환되기 위한 공간차원의 노력이었다. 미국의 냉전전략 속에서, 미네소타프로젝트를 비롯한 미국의 교육 및 문화원조사업은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학은 급격한 대중화로 인한 양적인 팽창기를 맞이하면서, 건축적 조형의 원리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적인 원리에 의해 캠퍼스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미국의 도시 계획가들이 기능주의적 도시를 반성하고 인간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캠퍼스는 이를 위한 실험장이 되었다. 서울대 종합캠퍼스 계획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갖는다.

서울대 종합캠퍼스 계획과정은, 동시대 미국의 문화적 영향 아래에서 도시계획적인 원리를 적용해 수립한 최초의 캠퍼스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한국 대학공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축 중심의 논리에서 외부공간의 조직 중심의 논리로의 시점의 전환을 제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건축계획적인 의의가 있다. 그리고 고층화와 같은 현대 도시의 보편적인 경관을 막연히 추구하기보다,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전통수법의 기용을 통해 특수한 해법을 도출한 한국 최초의 지역주의적 환경계획의 시도라는 점에서 도시계획적인 의의 또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서울대 종합캠퍼스화를 통해 교실 안에서 권위적인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이 전부였던 제국대학의 삶은 교실 바깥의 외부공간에서의 다양한 과외 활동들과 교류를 통해 민주적인 사회를 연습해 나가는 종합대학의 삶으로 대체되어 갈 수 있었다. 한편, 서울대 종합캠퍼스에 적용된 계획원리들은 그 참여 인력들을 통해, 그 이후 폭증하기 시작한 다수의 신설 캠퍼스의 계획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형 등 외부 조건에 대응해 논리적으로 체계화된 조직으로서의 한국 대학공간의 모습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서울대의 종합화는 한국의 현대 대학공간의 토대를 확립한 사건으로서도 그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겨둔다.

## REFERENCES

1. Babbitt, H. (1961).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Final Report of Adviser in Engineering*, University of Minnesota.



Figure 19. A Model of the College of Arts, SNU  
(source: Jung I. (2000). *The Architecture of Kim Swoo-guen*, Seoul, Spacetime)

2. Brazinsky, G. (2007).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Koreans, Americans, and the Making of a Democracy*,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3. Bronfenbrenner, M. (1961). *Academic Encounter : The American University in Japan and Korea*, New York: Free Press of Glencoe.
4. Choi, J., Shin, J., & Kim, S. (2017). Predicting the Location and Suitability of Campus Life Bases Resulting from Campus Growth and Multi-centralization: A case stud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 Campu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and Design Section*, 33(12), 65-72.
5. Dober, R. (1996). *Campus Planning*. Ann Arbor, MI : Society for College and University Planning.6
6. Dober, R. (1982). *Institution Planning*. Bentley, M., *Higher-Education Facilities*. Cambridge, Massachusetts : Aga Khan Program for Islamic Architecture, 60-62.
7. Kang, M. (2002). *A Study on the higher education in Korea under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8. Kim, H. (2012). Tracing the Architectural Origin of the Bosung College Library (1935~37),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21(4), 47-58.
9. Kim, J., & Choi, W. (2012). *Kim, Jin-kyoon + His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rchitectural Environment Design Lab.*, SNU, AEDL.
10. Kim, K., & Lee, Y. (2019).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Pinson Hall, Yonsei University, focused on Usage as University Dormitory from 1922 to 1944,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28(3), 55-66.
11. Kim, M. (2009). *A Study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in the 1950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iversity Planning and Development. (1972).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iversity Planning and Development*, Seoul, SNU Press.
13. International Congresses for Modern Architecture. (1952). *The heart of the city: towards the humanisation of urban life*, New York : Pellegrini and Cudahy.
14. Jeon, B. (2019). Yoon Chang-sup: The Great Master of Architecture, *Build an Ivory Tower - Seoul National University's Pioneers*, Seoul, Gyeonginmunhwasa, 357-373.
15. Jeon, B., Woo, D., & Choi, W. (2014). *The Oral Record of Yoon Seung-joong(Yoon Seung-joong Gusuljip)*, Seoul, Mati.
16. Jeong G. et al., (2011). *Colonial Power and Modern Knowledge : a Study on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 Seoul, SNU Press
17. Jung I. (2000). *The Architecture of Kim Swoo-guen*, Seoul, Spacetime
18. Kim, C. (2006). *A Study on the Campus Growth and Layout Change according to the Location in American College and University*,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 Kim, Jin-kyoon. (2019, April 12). Interview. Seoul
20. Kim, M. (2009). *A study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in the 1950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1. Kim, S., & Oh, H. (2014). The Architect who draws a City(Dosireul Geurineun Gonchukga), Seoul, Changbi.
22. Lee, Kyu-mok (2020, February 8). A Telephone Interview. Seoul
23. Lee, S. (2016). On The Asia Foundation's Cultural Projects in South Korea - Based on the budget documents from 1954 to 1959,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40, 9-55.
24. Lee, S. (2005).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Tasks of American Universities: Diversity, Autonomy, and Pragmatism, *Asian Journal of Education*, 6(3), 161-181.
25. Lee, Y. (1991). *A Study on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Space Type of Higher Education Facility in Korea*,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6. Lim, Choong-shin. (2020, February 6). Interview. Seoul
27. Middlebrook, W. (1960). *Report on Survey of National Higher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Education, ROK&USOM/Korea
28. Oh, S. (1996). A Study on the Functional and Physical Organization for the University Campus Plann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2(1), 23-36.
29. Paek, S., & Ah, D. (2018). University Masterplan and Negotiated Idealism: On the Evolution of the Masterplan of Yonsei University throughout 20th-century Korea,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17(3), 401-408.
30. Park, D. (2018). The Minnesota Project - Rebuil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s Architectural Engineering Department and the Formation of U.S.-Oriented Architectural Academia, 1954-1962,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and Design Section*, 34(9), 117-128.
31.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Applied Science Research Institute, Urban and Architectural Research Lab. (1970).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pus Master Plan*, Seoul, SNU, College of Engineering, Applied Science Research Institute, Urban and Architectural Research Lab.
32.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ilation Committee. (2006).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1946*, Seoul, SNU Press.
33.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struction Headquarter. (1972).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pus Master Plan*, Seoul, SNU Press.
34.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8). *The Summary of 10-year Plan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NU.
35. Seoul National University Archives. (2016). *Rise of Knowledge and Dynamic Era: Special Exhibition Celebrates 70th Annivers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NU Archives
36. Song, E. (2017). *The Birth of Seoul(Seoul Tansaeng-gi)*, Seoul, Pureunyoksa.
37. Sung, N., & Jeon, B. (2018, October). *The Times of 'Dongyang Choidae' - Trends of National Facilities in Korea during the 1960-80*. The 12th ISAIA Conference, Pyeong-chang.
38. Turner, P. (1984). *Campus - An American Planning Tradition*, Cambridge, The MIT Press
39. Unknown. (1965, January 4). A Springboard for Prosperity, *SNU Press*, p.1.
40. Yoon, C. (1959). *A Future Plan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Received Apr. 10 2020 Revised May 6 2020 Accepted Jun. 16 2020)